

“왜? 어떻게?” 함께 풀어가는

한국여성발명가협회

한국여성발명가협회는 1993년 10월 창립된 여성발명가들의 모임이다. 회원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여성발명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회는 하상남(河相南) 초대 회장(69세·효창세리온대표, 국제발명품 전시회 2회 및 국내발명품전시회 2회 수상자)을 중심으로 2백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고 부산과 대구에 지부를 두고 있다. 만 두돌이 못되는 신생 단체이지만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세인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판사제 도입 서명운동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보면 우수발명품 전시회 및 국제체인스토어쇼 참가,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아이디어상품전 개최, 세미나 및 공청회 참가, 중국 및 모범기업 산업시찰, TV·라디오·신문·잡지 등에 본 협회 활동 및 회원 제품의 소개 등 홍보활동 및 발명에 관한 상담안내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여성발명가 우수사례 발표회는 본회가 추진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해 4월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부문 합동 심포지엄」에서 하상남회장의 「협의회 구성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제안이 채택되어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본부」가 설치되고 하회장이 공동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본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1백31개단체 1만1천7백90명이 참가하여 지난해 7월14일 국회에서 1998년 3월1일부터 특허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액체육정과 회전요리상」 등 사례발표

또한 지난 5월30일에는 발명의 달을 맞아 본 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공동주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후원으로 여성발명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장숙정무제2장관의 축사와 안광구특허청장의 「최근 국내외 특허 동향과 여성의 역할」 주제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례발표는 「액체육정과 회전요리상」을 개발한 하선정 종합식품의 하선정회장(본협회 명예회장) 및 「한 손으로 쉽게 뽑을 수 있는 플러그」를 개발한 황소현 로고스상사대표, 「전화기 위생패드」를 개발한 폰 케이의 황연숙대표가 발명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본 협회의 앞으로의 기본 방향은 첫째, 발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발명분위기 조성 교육 및 홍보사업, 둘째는 발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명 공작실 운영 및 제 신청서 작성, 산업재산권 기본상식 등 발명가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로 발명의 성공화 사업으로 개발된 발명품의 홍보 및 상설판매 유통매장 운영사업 등이다.

특히 발명분위기 조성사업으로는 상설여성발명교실, 모자발명교실, 순회지방발명교실, 여성신문·여성잡지 등 지상

지난 93년 10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여성발명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여성발명가협회는
2백여명의 회원들이 뚝뚝 뭉쳐
여성발명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명교실, TV·라디오 발명교실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발명기법 등 발명집근 교육과 발명으로 연결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의 제 의견수렴창구인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상설실험공작실 운영, 산업재산권 기본상식 등 발명가 기초과정 교육 및 여성발명품의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정보제공, 여성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상설 전시판매 유통매장의 설립으로 발명품의 전시 홍보 및 판로확보의 발명품의 성공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제도적 장치 및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발명실적 아직 저조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여성권리자는 93년 12월 현재 특허 실용신안 등록자 5백64명과 94년 3월 현재 의장등록자 9백56명 포함 1천5백20명이며 출원중인 여성권리자를 포함하면 2천명 내외로 추산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의장의 특허출원 건수중 여성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0년과 91년에 각각 3.3%를 기록한데 이어 92년 3.7%, 93년 4.3%, 94년 3.7%로 나타났으며 특허를 인정받아 등록된 비율은 94년 2.8%에 그치는 등 90년대 들어 매년 2.5% 안팎으로 93년 말 기준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5위인 우리나라 전체 출원율에 비추어 볼 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의 발명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여성들의 잠재능



◀여성발명가협회가 대한변리사회·한국 학교발명협회와 공동후원한 다농마트 에디스마트 주최 발명품 및 아이디어 생활용품 유통전시회

▼지난 5월30일 열린 여성발명가우수사례 발표회 장면

력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생존의 관건이며 여성의 발명활동은 여성자신의 자기개발과 함께 발명하는 어머니를 통한 자녀들의 창의력 개발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는 아이디어 창출 - 출원 - 시제품 제작 - 창업 - 유통판매의 전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화·분업화 사회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만능으로 혼자 해결해야 하는 개인 발명가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 역시 여성발명 활성화의 과제이다.

국제發明展서 실력과시

한국여성발명가협회는 모든 여성이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기치아래 별도 회원자격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군·읍·면·동 단위까지의 조직 결성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마을 단위까지 발명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이웃 일본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힌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발명조직의 확대 및 발명분위기 조성은 '기술한국' '선진한국'의 미래를



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것이다. 행정조직과 새마을 조직, 부녀조직 등 기존조직을 이용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현재 본 협회의 회원 중에는 전국 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독일, 스위스 등 국제발명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국제대회수상 11명 13회) 국위선양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성공사례 발표에 소개된 발명품 외에도 「승강이동식 가구」, 「언어교정기」, 「화분가리개」, 「쓰레기 종량제 봉투걸이 쓰레기통」, 「목욕가방겸 의자」, 「다용도 정리함 박스」, 「컴퓨터 디스켓 보관함」 등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여성특유의 제품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의 해답을 풀어가며 여성발명가의 탄생을 고대한다.

元美姬<한국여성발명가협회 전 사무국장>